

權威교수와 權威主義교수

李 聖 勳

(慶星大 哲學科)

대학 교단에 몸을 담은 지 이제 겨우 4년. 따라서 이런 일천한 경험으로 대학이나 대학 교수 운운한다는 것은 주계 넘은 것이 될 터이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교수로서의 자기 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요구되던 격변의 시대에서 올챙이 시절을 보냈던 죄과로 미숙하나마 그간의 경험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진단하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짧은 글에서 경험 모두를 다 말할 수는 없고, 다만 많은 대학에서 한두 번은 겪어 보았을 학생들에 의한 동료 교수의 축출 문제를 소략하게 정리해 볼 것이다. 필자가 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공개적·집단적으로 특정 교수를 매도한다거나 심지어 대학 사회를 떠나도록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 그간의 변화는 실로 놀랍기 그지 없다 하겠다. 그러나 이 글은 그런 현상을 두고 단지 한탄하거나 비분강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실로 받아 들이면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를 짚어 내고자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단지 학문적 무능이나 어용만으로 제

자들에 의해 교수가 대학 문을 떠나야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벗어나는 격하고 때로는 비인간적인 태도를 직접 목도하였으면서도, 나는 우리의 대학생들이 사재지간의 하한선 아래로 내려갈 정도까지 목적지향적 인간형으로 탈바꿈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하였다. 노골적으로 어용 행위를 하고 한심할 정도로 학문적 무능을 노출하는 교수들이 한 묶음으로 정당하게 매도 당하기는 했어도, 그들 모두가 대학 문 밖으로 밀려나지 않았다는 것은 축출의 의지를 불태우는 학생들 사이에 어용과 무능 이외의 일정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 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어용이고 무능하다 하더라도 학문적 층위 자체는 아니나 그것과 여러모로 매개되어 있는 인간적 권위를 갖추고 있는 한, 그 교수는 당연히 축출 명단에서 제외된다. 짧은 경험으로 확인하건대, 어용과 무능이라는 필요 조건에다가 권위주의적 인간형이 충분 조건으로 가담될 때, 거의 예외없이 명단에 등재된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관심의 표적은 무엇(what)보다는 어떻게(how)다. 설령 어용적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권위주의적이지

않게 전달할 경우,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학생이 아니라면 큰 반발을 보이지 않는다.

대학 사회도 교수와 학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동체인 한, 그 구성원들은 비단 지식의 주고 받음뿐만 아닌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의존하고 상호 구속하게 된다. 공동체의 각 개인은 이런 상호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의 의견이나 주장을 펴나가며, 더 나아가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켜 타인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서 이른바 권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생겨나는 것이다. 권위는 자기 의견의 관철 능력이 다른 아니다. 그러므로 권위는 혼자서는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즉 타인과의 상호 관계 안에서 생겨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떤 권위가 올바르고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권위는 타인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인격적 힘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해서 자발적으로 이끌려 들어 오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에게 정신적·물리적 폭력을 가해 강제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다. 둘 다 힘임에는 분명하나, 자발성에 근거한 앞의 힘은 전혀 폭력적이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폭력과 강제에 근거한 후자의 힘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발성에 근거하는 권위는 당사자가 스스로 권위를 쟁취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합리적·이성적 판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인정해주는 권위다. 이것은 그의 의견과 견해가 나의 것보다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이성적 판단의 결과로 나타나는 강요되지 않은 순수한 존경심이다. 이에 반해 강제성에 근거하는 폭력적 권위

는 자신의 무력함과 부당성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목적적인 기만 행위에 불과하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는 자기에게 권위가 주어질 수 없으므로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곧 이성의 포기요 합리성에 대한 폭력이다. 우리가 권위주의니 권위 의식이니 하고 부르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정당성을 상실한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 한국의 대학 문화도 그간 권위주의적으로 물들었다. 유신부터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대학 교수의 주체는 학문적 양심에 있었다기보다는 이른바 공권력과 대학이라고 하는 제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의 대학 교수는 애써 정치적 무풍 지대에 살려고 노력했고, 독재의 강도에 비례해서 학문의 비정치적 순수성을 부르짖었다. 그러므로써 대학 교수는 교수이기 이전에 정의로운 인간으로서의 일정한 위상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학생들로부터의 비판을 자초하기에 이르렀다. 더우기 부당하게도 대학 교수들은 범주 혼동의 오류를 저질러서 학생들의 비판을 정확하게 현실과의 함수 관계 안에서 읽어내지 못하고 대학 교수의 어떤 초시대적 권위에 도전하는 불경스런 것으로 착각했다. 학생들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다. 비판을 촉발시키는 원인 행위가 엄연히 있었던 것이다.

인간적·인격적 권위의 모습도 초역사적으로 고정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실 사회 속에 있는 대학과 대학 교수는 직접·간접으로 현실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대학 교수가 갖출 인격적 권위의 구체적 모습도 당대 현실에 의해 규정된다. 모든 인간적 미덕이 모든 시대에 걸쳐 한결같이 권위를 인정 받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인간적 권위를 어용과 무능의 문제와 관련하여 묘하게 두둔했지만, 그래도 역시 대학

사회에서는 그것이 소극적·배수진적 의미만을 갖는다는 것도 분명하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의 인간적 권위는 어디까지나 학문적 층위에 의해 해석되기 때문이다. 대학 교수로서의 인간적 권위를 판결하는 최종 심급은 역시 교육과 학문인 것이다. 따라서 일단 대학 교수가 되면 평생 신

분이 보장된다는 부당하고도 편리한 명제에 안주하지 않고 학문과 교육에 진지한 애정을 쏟는 대학 교수라면 이론바 축출의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하에서는 대학 교수의 권위가 제도나 공권력의 시혜가 아니라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